

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

< 보도내용 >

- '26.7.28 한국경제, 머니투데이 등 일부 매체는 對美 투자 1호 프로젝트로서 198억불 규모의 텍사스주 LNG 복합화력발전이 낙점되었다고 보도

< 산업부 입장 >

- 對美 투자 프로젝트 관련, 정부는 미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나,
 - 1호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·발표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
- 韓·美 외교관계 등 국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한미통상협력과	책임자	과 장	박홍일 (044-203-5650)
		담당자	사무관	유영석 (yooyseok@korea.kr)